

호남대 '우리땅 독도 수호 특별전' 개막식



호남대는 18일 교내 평생교육원 호남갤러리에서 개교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제2회 우리땅 독도 수호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광주, 목포, 여수, 순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무 축구단 - 영광군 협약식



광주 상무 프로축구단 장재현 부단장(사진 오른쪽)과 정기호 영광군수는 18일 영광군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내달 5일 광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K-리그 경기를 영광스포티움운동장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코레일 광주지사 비상사고 복구 모의훈련



코레일 광주지사(지사장 백종찬)는 최근 호남선 장성역에서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사고 복구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출발신호기 파손돼 고속열차가 통제될 경우를 기정해 신속한 임시신호기 설치와 신호보안장치의 기동 등을 점검했다.

조규순 전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별세



순천 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사회 후진양성에 헌신해온 조규순(趙圭鈞) 순천 혁신고등학교 이사장이 18일 새벽 1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을 13년간 맡아오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 장학회 창립과 주암고등학교 설립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써 국민훈장 목련장과 칠탑 산업훈장, 순천 시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장례는 상공회의소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순천 혁신고등학교 강당에서 영결식을 가진 뒤 순천 선영에 안치된다. 유족으로는 조총운 전 순천시장과 1남 2녀가 있으며 빈소는 순천성가를로 병원 장례식장.

(동부취재본부=광현기자 light6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서정심씨 장남 김봉석(변호사)
군 조현기(남부대 대학원장)·오석
심씨 장녀 우아(남부대 교수)양=20일(토) 낮 1시 40분 상무지구 예술
의 전당 3층 아이리스실.

▲김현웅(광주시 도시건축국장)
씨 아들 후승군 김준설씨 딸 명희양
=20일(토) 낮 1시 상무지구 예술
전시관 3층 컨벤션홀.

▲김 엽(서남대 의대 교수)씨 4남
현국(전남대 의대 전공의)군 박상수
씨 3녀 선주(〃)양=21일(일) 낮 12
시 신양파크호텔 1층 컨벤션홀.

▲이정심씨 장남 재현군 배 송(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씨 딸 진희양
=27일(토) 오후 3시 경기 일산 새
천년컨벤션웨딩센터, 광주 피로연
20일(토) 낮 12시 서구 화정동 염주
체육관내 국민생활관.

동창·동문회

▲전남 고 8회 동창회(회장 김병
만) 정기모임=19일(금) 오후 7시30
분 삼무지구 우림식당. 011-9619-
3861.

▲북성중 19회 동창회(회장 손영
환)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천
하일룸. 062-376-3032.

▲광주 숭일고 21회 정기 월례회
=21일(일) 오후 7시 쌍촌동 호남대
입구 일천석회집. 011-647-1345.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
성기)=22일(월) 오후 6시30분 현대
예식장 건너편 화랑궁회관. 062-
223-7340.

▲재광 벌남초교 35회 동창회(회
장 김군재)=25일(목) 오후 6시30분
한진문화사. 062-222-0728.

▲재광 보성을 향우회(회장 안명
섭)=23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동
부경찰서 맞은편 자연생활체육관

광주 상록웨딩홀. 062-361-2680 ~
2.

페. 062-227-4743.

모임

▲조대신문 창간 54주년 기념식
및 조신회(운영위원회 백수인) 정기
총회=19일(금) 오후 7시 증심사 입
구 나비야 청산가자. 010-9474-
9420.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
남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22일
(월) 오전 11시30분 도지원 회의실.
011-605-2059.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아동
기숙상답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
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
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호남해비라기 아동센터 무료
부경찰서 맞은편 자연생활체육관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
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
톱 서비스. 062-232-1375, www.
forchild.or.kr

마르퀴스 후즈후...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리더를 선정, 업적과 프로필 등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명연구소(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병원에서 심장근육 세포 고사에 대한

부음

▲박계심씨 별세 이용채·용수·점
례·정희·말의·순희·순숙씨 모친상
김만홍·김천석·김종이·김진오·임영
준씨 빙모상=발인 20일(토)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송원덕씨 별세 김종섭씨 상배
선재·선화·선남·선경씨 모친상 고
영환·김순식·최근성씨 빙모상=발
인 20일(토)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김성철씨 별세 정환(자영업)·
순옥·김옥·하옥씨 부친상 박영규·
정상주씨 빙모상=발인 19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
227-4000.

▲전옥심씨 별세 이호근(세창산
업)·호연·성임씨 모친상 장영만씨
빙모상=발인 19일(금) 학동 금호
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영수씨 별세 동식·동철(세계
약국)·영숙씨 부친상 박병철씨 빙
부상=발인 19일(금) 광산구 송정
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1.

명량대첩 축제 총 연출 주경중 영화 감독

“울돌목서 당시 해전 모습 생생히 살려낼 터”

“울돌목서 당시 실제 해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오는 10월 11~14일까지 해남과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의 총 감독을 맡은 영화 '동승'의 주경중(49) 감독은 18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고증 통해 전투장면 재연’

현역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지역축제의 총 감독직을 맡은 주 감독은 지난 2002년 동지승의 산사 생활을 다룬 '동승'으로 상하이영화제 각본상과 아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할영상, 시카고영화제 최우수관객상 등을 휩쓸었던 인물.

지난 3월부터 해남에 머물며 축제 준비를 진

두 지휘중인 주 감독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쾌한 장면을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주 감독은 이를 위해 울돌목에 거북선과 함께 어선을 리모델링한 조선 수군 배 13척과 왜선 133척을 띠를 계획이다. 전투장면은 절묘한 고증을 통해 당시 군함의 배치상황이나 전투과정 등을 보여주게 된다. 승선 인원만 1천 300여 명이 이르고, 행사 참여 인력은 5천여 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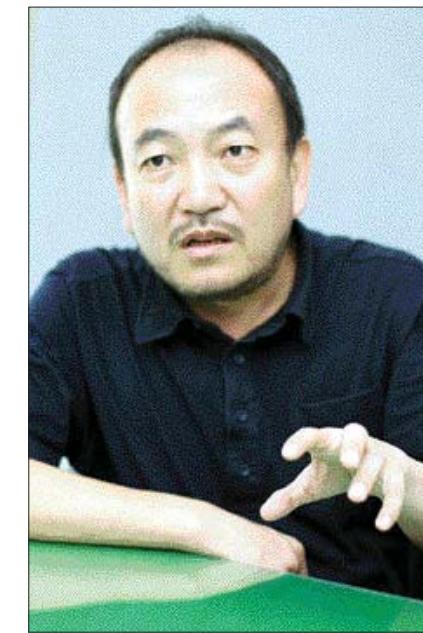
주 감독은 “이순신 장군이 1597년 울돌목에서 13척으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장면을 411년 만에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 차 오른다”면서 “진도와 해남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주 감독은 특히 이번 축제에서 한국과 일본,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화합의 메시지도 담아내겠다는 포부다. 우수영과 진도대교, 녹진광장에 이르는 4km 구간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십리 강강술래’를 계획중인 주 감독은 명량해전 당시 참수당한 왜군 수장 구루시마 미치후사(來島通徳)의 후손과 영남지역 주민, 외국인 관객을 초청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왜군 수장 후손·영남 주민 등 초청

행사 이틀째엔 위령 씨김굿 행사를 통해 명량대첩에서 전사한 조선수군과 진도, 해남 주민들, 그리고 왜군들의 넋도 함께 달래주기로 했다. 주 감독은 또 해남과 진도 주민들이 직접 자가 지역의 설화나 전설 등을 마당극이나 연극, 뮤지컬 등으로 꾸며 21편의 공연을 축제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웠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법학연구원 학술대회 축사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2008년 법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한다.

본사 노조위원장 장필수 차장

기자협회 지회장 최재호 차장



광주일보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는 18일 정기총회를 갖고 언론노조 광주 일보지부 제19대 위원장에 장필수(左) 차장 원쪽) 사회2부 차장을, 한국기자협회 광주일보지회장에 최재호(右) 차장으로 선임됐다. 장 위원장은 1992년 광주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등을 거쳐 사회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지회장은 1991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등을 거쳤으며 제18대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사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신경구 ▲재정관리본부장 최재웅 ▲학무정책실장 송경안



18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평양 빙공장 설비기기 북송 환송식'에서 참석자들이 제빵기기를 싣고 평양으로 출발하는 대표단을 환송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배한 밭효콩과 남측의 자본 및 기술, 북측의 노동력, 해외동포의 농업생산이 결합된 사업으로서 남북 농업

교류 협력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체육기자 chae@kwangju.co.kr

고영업 조선대 교수 세계 인명사전 등재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리더를 선정, 업적과 프로필 등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명연구소(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병원에서 심장근육 세포 고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리더를 선정, 업적과 프로필 등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명연구소(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병원에서 심장근육 세포 고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리더를 선정, 업적과 프로필 등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명연구소(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병원에서 심장근육 세포 고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리더를 선정, 업적과 프로필 등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